

Global Goings-on

아시아

빈곤과의 전쟁 (Filipinos join Asians in standing up, making pledge to fight poverty)

아시아 국가들은 빈곤과의 전쟁에 들어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6억4천만 명에 이르며, 매일 기아로 5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아시아개발은행과 유엔이 공동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최극빈층은 1990년 10억 명에 육박했으나 올해는 6억4천1백 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빈곤층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외의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상황이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UN 새천년개발계획의 일환인 '일어나 한 목

소리를 내자(Stand Up Speak Out)'는 기아와 빈곤퇴치를 위해 전 세계인들이 24시간동안 참여하는 캠페인인데 이를 통해 각국 지도자들에게 빈곤퇴치, 빈부격차해소, 부패추방, 인권수호 등을 촉구한다.

공무원, 시민, 학생 등 수천 명의 필리핀인들이 'Stand Up Speak Out' 캠페인에 참여하여 빈곤퇴치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하루 동안 필리핀 전 지역에서 3백만 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인도에서는 가장 소외된 지역의 빈곤여성들이 모여서 빈곤퇴치를 위한 회의를 주최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도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한다.

또한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인 방글라데시에서도 수백 명이 시청에 모여 정부에 빈곤퇴치를 요구했으며, 이를 위한 콘서트와 캠페인을 벌였다.

(링크: <http://www.iht.com/articles/ap/2007/10/17/asia/AS-GEN-World-Poverty-Day.php>)

개발도상국

경제성장과 보건의료 (Health care needs changing in developing world, official says)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화, 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비전염성 질환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과거 개발도상국의 주요 질환은 말라리아, 결핵 같은 전염성 질환이었으나, 도시 인구의 증가 등으로 생활패턴에 변화가 있으면서 심장병, 뇌졸중, 암, 정신질환, 신경질환 등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처럼 급속하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질병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비영리기구 Global Forum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연간 보건의료에 사용되는 1250억 달러 중 고작 일부만이 건강관련 연구개발비용에 사용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늘어나고 있는 건강문제를 감당할 보건의료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원조와 국가간 공공보건정보의 교환과 협력, 선진국가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링크: <http://www.iht.com/articles/ap/2007/10/29/asia/AS-GEN-China-Health-Care.php>)

미국

행복지수 격차 (The happiness gap)

선거는 보통 부자와 가난한자 혹은 좌파와 우파 사이의 대결 양상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번 미 대선은 개인의 삶에 낙관적인 부류와 공공정책에 비관적인 부류의 대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6%는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하며, 76%는 가족의 수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2%는 앞으로 5년 뒤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미국인은 총 65%로 전세계에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겨우 25%만이 만족한다고 답하여 미국은 브라질, 멕시코, 이스라

엘에 이어 개인의 삶과 공공정책의 만족도 사이에 격차가 가장 큰 곳으로 나타났다.

68%의 미국인은 현재 미국이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62%는 현 정부의 정책들이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워터게이트사건이 터지고, 베트남전이 끝나가던 1974년 때보다도 더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정부의 정책이 개인의 영역은 침해하지 않고 테러, 의료비, 에너지, 이민과 같은 문제만을 담당하는 '야경국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37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시행할 때만 해도 유권자들은 정부, 자신들의 삶 모두 변화되기를 바랐으나 오늘날의 미국 유권자들은 지금 그대로의 삶은 충분히 누리고, 정부만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링크: <http://www.iht.com/bin/printfriendly.php?id=8113871>)

세계보건기구

에이즈 추세 (WHO's counting)

WHO와 UNAIDS의 2007년 통계에 의하면 에이즈 보균자 수는 지난 1년간 3,950만 명에서 3,32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이러한 보균자 수 변화는 실제적인 감소가 아니라 보균자 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감안하면 지난 1년간 보균자수는 50만 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지는 에이즈와의 전쟁이 암울한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에이즈 치료프로그램이 세계 전역에 보급되면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에이즈 사망자수는 2005년 220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현재는 21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새롭게 감염된 사람 수도 1998년 340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들어서 현재는 2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추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많은 나라에서 공중보건 종사자들이 안전한 성관계 등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항에이즈 치료제 배포를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한편, UNAIDS의 Paul De Lay는 2015년이던 에이즈와의 전쟁에 필요한 예산이 당초 예상치에서 약 10%만큼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링크: http://www.economist.com/world/international/displaystory.cfm?story_id=10180884)

홍역 사망자수 감소 (Globally, Deaths From Measles Drop Sharply)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000년 이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757,000명이었지만, 2006년에는 242,000명으로 68% 감소하였다. 지금까지 홍역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겪었던 아프리카의 경우 2000년 이후 사망자수가 가장 큰 폭(91%)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크게 줄어든 데는 2001년 시작한 Measles Initiative라는 프로젝트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Measles Initiative는 UN Foundation, WHO, American Red Cross, UNICEF, CDC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인데, 모든 유아가 1살이 되기 전 홍역 백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주요 목표의 하나로 두고 있다.

Measles Initiative가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아프리카의 경우, 제때에 1차 예방접종을 받는 아동비율이 지난 5년간 56%에서 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는 같은 기간 72%에서 80%로 증가하였다.

Measles Initiative는 2010년까지 홍역에 의한 연간사망자수를 9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링크: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7/11/29/AR2007112902021.html>) [GSST](#)